

# ICRC 중앙심인국

##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중앙심인국의 역량 강화



브룬디 부줌부라(Burundi, Bujumbura).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 살았던 두 명의 청소년이 어머니와 상봉하고 있다. ICRC는 두 청소년의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UNHCR과 함께 귀향을 조율하였다.

### 심인 활동 150년

지난 150년동안 ICRC는 중앙심인국을 통해 분쟁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 및 친인척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찾기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업무는 1870년 교전국이 바젤 기구(Basel Agency)에 전달한 포로목록을 통해 친척이 잡혀 있다는 소식이 접해지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ICRC에 조직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었던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도 포함된다. 많은 경우에 이런 분쟁 기간 동안, 국제전쟁포로기구(International Prisoners-of-War Agency)와 중앙포로국(Central Agency for Prisoners of War)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이하 각국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망 또는 실종된 친척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고,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를 가족과 다시 연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양한 출처에서 얻은 각 수색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총 4,100만 장의 카드에 기록되어 있다.

150년간 세계는 변화하였지만, 무력 분쟁 및 기타 인도적 비상사태로 인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실종되고 있다. 따라서, CTA의 업무는 여전히 의미미하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CTA는 전세계의 각국 회원사와 긴밀히 협업하며 다음 업무에 대하여 국가에 도움을 준다:



**실종 방지** - 방법: 취약계층, 특히 구금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등록, 전화 통화 및 적십자 메시지를 통하여 가족에게 연락할 수단을 제공, 무력 분쟁시 보호받는 사람과 가족간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국 개국을 추진, 군별 식별표 활용 증진, 법의학 체계 향상, 존엄한 유해수습에 대한 트레이닝 제공

**중앙심인국(CTA)**은 제네바 협약에 명시된 ICRC의 가장 오래된 기관 중 하나이다. 1870년 바젤 기구로 창설된 CTA는 오늘날 가족 연계를 보호하고 복구하며, 실종자를 수색하고 식별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실종자 가족이 필요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려는 ICRC의 세계적 노력의 중심에 있다. CTA는 가족찾기 활동(RFL) 및 실종자, 법의학, 보호 데이터 관리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실종자의 생사여부 및 소재 파악** - 방법: 국제적십자 및 적신월운동(이하 적십자운동)의 가족찾기 네트워크를 통한 실종자 추적 및 가족 연계 복구를 위한 활동 전개; 실종자 찾기를 위한 국가별 조율 매커니즘 지원 및 주관; 정보의 관리 및 보호; 매장지 소재파악 및 확보에서부터 유해 수습, 분석, 신원확인 및 유가족 인계에 이르기까지 수색 절차에 대한 자문



**실종자 가족의 다양한 필요사항을 지원**- 방법: 실종된 친척 수색 시 동참; 가족 및 공동체에게 문화 및 종교적 관행에 맞추어 심리적, 심리사회적, 법적, 행정적, 경제적 지원 제공



페루 아야쿠초 카나리레(Peru, Ayacucho, Canayre).  
1980년대부터 실종된 친척을 찾고 있는 한 남성이 신원불상의 발굴된 사체에서 추출한 DNA와 비교할 생물학적 표본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도전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

수많은 가족들이 계속해서 ICRC와 각국 적십자사에 실종된 친인척들의 소식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 많은 경우에 이는 일부 장기화된 분쟁, 다수 국가와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인원의 이동, 점점 더 파괴력 있는 자연재해의 영향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더 복잡해 지는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분쟁, 이주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이미 이산가족이 되어버린 가족들의 상황이 COVID-19 팬데믹과 그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각국 적십자사는 ICRC가 개발한 심인 및 기타 가족 찾기 서비스를 위한 도구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일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민감 데이터를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ICRC에 하였다. 더 나아가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인도법상 무력 분쟁과 관련하여 실종 방지 및 실종자 수색에 대한 의무를 인지하고, 무력 분쟁시 국가정보국 창설과 현대적 운영에 대해 ICRC의 자문을 요청하였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 회원사와 ICRC의 업무의 실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팬데믹은 또한 일부 서비스의 업무절차 및 전달의 디지털화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도 하였다. 예를 들면 CTA는 지속적으로 각국 적십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상 수단을 도입

하였다. CTA는 가족연계 서비스에 COVID-19 예방 조치 통합, COVID-19로 인한 사망자 유해 관리, ICRC가 개발한 온라인 심인 플랫폼 사용 등에 대한 주제에 대해 온라인 트레이닝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확산으로 인해 마치 전 세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분쟁, 자연재해, 이주 및 구금 등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이산가족 구성원의 재결합 및 상봉을 위하여 점점 고도화되는 세계적 심인 체계를 통해 본 운동의 업무를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지원하지만, 다음 사항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무력분쟁으로 인해 여전히 그 생사가 불명확한 수천 명의 실종 상태인 사람들의 생사여부 확인지원 및 해당 가족에 대한 법적, 심리적, 기타지원 제공
- 가족 분리를 유발하는 대규모 긴급사태에 대한 대비 강화
- 분쟁 및 기타 인도적 긴급사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십자운동의 가족연계 서비스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다수의 국경 및 해양 경계를 월경한 뒤에 실종된 이주자 수색에 참여하는 국가, 국제기구 및 법의학 기관 사이에 정보 및 전문성 공유와 조율 강화

현재 및 미래의 외부적 도전과제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하여, CTA는 그 기초를 강화하는 한편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할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ICRC는 CTA 및 파트너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 그리고 ICRC의 역사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시키는 CTA 변혁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이 5개년 이니셔티브(2020-2025)는 [ICRC 본부전략 2019-2022](#)과 [국제 적십자·적신월운동 2020-2025를 위한 RFL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모두 분쟁 및 기타 폭력과 관련하여 이산가족,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ICRC와 그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또한 UN 안보리 제 2474호 결의안(2019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결의안은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람들이 행방불명 되는 것을 무력분쟁 당사자들이 방지하고, 사망자 수색 및 유해 수습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모두는 CTA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보관주체이자 중립적인 중개자라는 점과 데이터 공유 및 중앙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CTA 변혁 이니셔티브에 발맞추어, CTA의 여러 업무영역이 다음과 같이 강화되고 있다.

- CTA는 디지털 방식으로 가족들이 가족연계서비스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럽으로 가는 길에 실종된 이주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진을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얼굴추적\(Trace the Face\)](#) 플랫폼이 포함된다.
- 관련 가족이 답을 찾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CTA는 이름 대조, 그리고 지역을 초월한 복잡한 이주 패턴 분석 등 심인의 일부 측면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탐색하고 있다.
- 또한 CTA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분석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동시에 동 정보가 실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용 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CTA가 실종자 수색 및 유해 식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 표준화, 접근, 분석하기 위한 선도적인 국제 메커니즘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실종 이슈에 대한 세계적 대표로서 ICRC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조직하도록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 역할을 증강하기 위하여, CTA는 전담 허브를 구축할 것이다. 이는 전세계 실무자 공동체를 육성하고, 기술적 가이드를 개발하며, 모범사례를 식별하여 ICRC의 실종자 프로젝트(2018-2022)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여기에는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학계, NGO, 국제기구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실종자 이슈에 대한 ICRC의 상당한 운영 참여와 더불어, 이 허브는 이 사안에 대한 세계 및 지역 단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결집하고 이를 더 광범위한 화해, 평화구축 및 발전 접근법에 내재화 할 수 있도록 CTA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스 레로스섬(Greece, Leros Island). ICRC 직원이 소말리아 이주자에게 얼굴추적(Trace the Face) 플랫폼을 설명하고 있다.



말리 바마코(Mali, Bamako). ICRC가 주선한 화상회의를 통해, 법의학 의사가 시신 관리에 대하여 말리 적십자사 자원봉사자들을 트레이닝 하고 있다. 그 목표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가족 연계를 보전하는 것이다.



예멘 아덴공항(Yemen, Aden airport). 예멘 분쟁과 관련하여 억류되었던 한 남성이 ICRC 전세기에 탑승하고 있다. 그는 예멘 적십자사와 ICRC의 도움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1,000명의 억류자 가운데 한 명이다.

기술이 많은 사람들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균형잡힌 접근 방식 없이는 오지에 살거나 구금되어 있어 기술의 혜택에 닿을 수 없는 혹은 기타 사유로 가족과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주로 놓이게 되는 취약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적십자 메시지 취합 및 전달, 구급차 방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행방 추적, 그리고 수십 년간 친인척들의 소식을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등 CTA의 전통적 활동은 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CTA 변혁 이니셔티브에는 가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간적 감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 ICRC는 역량 있는 인재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력 확충 및 트레이닝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ICRC는 인간적 접촉을 대체하기보다는 강화하고, 대응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프랑스 칼레(France, Calais).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기동팀이 이주자들에게 심인 및 기타 가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